

铁凝의 『玫瑰门』 다시 읽기

- 여성인물의 '되개'를 중심으로 -

최은정
(계명대학교)

1. 들어가면서

주지하다시피, 『玫瑰门』은 티에닝(铁凝)의 대표작이자 중국 신시기 여성 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1988년 9월 『文学四季』창간호에 처음 발표되고, 1989년 초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나온 이래 수없이 재판을 거듭하면서 문단의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아왔다.

『玫瑰门』에 대한 평가는 주로 여성(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부하고 드러내는 데에 탁월하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자연, 작품의 가치나 독특성 또한 여기에서 찾는다. 성잉(盛英)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그녀는 “티에닝이 성(性) 문화 의식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것을 통해, (중략)여성들 자신의 어둡고 추악하며 저열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드러나도록 했다”고 평가하고, 소설 이면에 내재된 더 본질적인 문화적 견인차는 바로 여성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녀는 티에닝이 여성의 본질 가운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냉정하고 엄격한 시선으로 표면화한 것에 작품의 독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¹⁾ 여성의 비극적인 현실의 근원을 성별적인 각도에서 찾아 그 비판

1) 盛英主编, 『二十世纪中国女性文学史·下』, 天津人民出版社, 1995, 773쪽.

의 칼날을 남성-가부장제에 두기보다는 여성 자신의 심리적인 결핍을 해부하고 비판하는 데에 더 많은 초점을 둠으로써 여성문학이 남녀 양성간의 성별대립이라는 단일성으로부터 벗어나 여성의 자아반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고 보는 루어팅(罗婷)의 견해도 이와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겠다.²⁾ 여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부하는 데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허자오쥔(贺绍俊)은 이 작품을 통해 여성에 대한 티에닝의 서술방식이 "고문(拷問)"으로 전환되었다고 본다. 여기에서 "고문"은 창작 초기 여성 선함의 발견과 묘사에 천착하여 여성을 심미화 하던 것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여성을 더 이상 완전무결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응시하는 그녀의 시선에 혈문과 탄식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혈문과 탄식은 여성에 대한 티에닝의 완곡한 비판이라는 것이다.³⁾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문화)의 부정성은 또한 인성(人性)의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그 논의의 중점은 스치윈(司绮纹)에게 모아진다. 황이(黄轶)의 견해가 대표적인 바, 그는 티에닝의 붓끝이 인간 내면에 깊이 가려진 인성, 특히 '악성'을 향하고 있다면서, 스치윈을 통해 인생과 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다.⁴⁾ 장샤(张霞)도 티에닝이 스치윈을 통해 여성 내면에 자리한 열등성을 해부하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여성의 본성을 탐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⁵⁾ 치홍(齐红)은 스치윈의 성격적인 특성을 "비정상성"과 "다면성"으로 요약하면서, 티에닝이 여성인물의 성격에 내재된 추악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여성인물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전복시켰다고 평가한다.⁶⁾ 그런가 하면, 리화(李华)는 티에닝이 스치윈을 통해 인성의 악함을 해부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그 악함의 근원을 추적한다. 그녀에 따르면, 특수한 사회역사적 배경 하에서

2) 「中国当代女性文学中女性意识的嬗变」,『湘潭师范学院学报』, 1998年 2期

3) 「女性觉醒: 从倾诉“她们”到拷问“她们”——论《玫瑰门》及其文学史意义」,『海南师范学院学报』, 2005年 1期.

4) 「一株妩媚而狰狞的罂粟花——谈《玫瑰门》中的司绮纹」,『郑州大学学报』, 1998年 2期.

5) 「女性宿命的演绎与突破——《玫瑰门》的女性世界及其在20世纪晚期中国女性文学史上的意义」,『四川师范学院学报』, 1999年 6期.

6) 「拒绝与诱惑——《玫瑰门》与当代女性写作的可能性」,『齐鲁学刊』, 2001年 1期.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이 여성 내면에 잠재된 악성을 이끌어 냈다고 본다.⁷⁾

이 외에, 작품에 등장하는 삼대(三代) 여성인물의 분석을 통해 세대 간에 따른 여성의식의 변천을 고찰하기도 한다. 이때 1대와 3대의 비교에 중점을 두는 바, 3대인 쑤메이(苏眉)에게서 여성의식의 발전과 이로 인한 여성 삶의 희망을 찾는 경향이다.⁸⁾ 또한, 동시대 여성작가 작품과 비교 고찰하거나 또는 티에닝의 여타 작품과 비교 고찰을 통해 『玫瑰门』의 특징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때 비교의 각도 또한 상술한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요컨대, 『玫瑰门』을 읽는 주요 키워드는 여성 ‘성’의식의 문학적 형상화, 인성-악의 발견, 여성(문화)의 부정적인 측면 해부, 모성 신화를 벗어난 ‘어머니’라는 네 가지 코드로 요약할 수 있으며, 대체로 스킴을 통해 이를 읽어내고 있다고 하겠다. 의심할 바 없이, 이는 『玫瑰门』독해의 출발점이자 핵심일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작품의 초점이 스킴에게 집중되는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로 인해 여성생존에 관한 서사로서 『玫瑰门』에 내재된 다성성은 희미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작품은 삼대 여성들의 각기 다른 삶을 기본 줄기로 하여 여성들의 다양한 생존방식을 묘사하고 있다. 외할머니 스킴, 외숙모 주시(竹西)와 손녀 쑤메이의 삶의 편린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여성은 공통적으로 이미 규정되거나 주어진 삶 또는 정체성으로부터 탈주를 시도한다. 이렇게 보자면 이 작품은 이들 여성의 탈주욕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에 본고는 『玫瑰门』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탈주욕망에 주목하여, 그 욕망에 내재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여성인물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되기의 몸짓’에 초점을 둘 것이다. 여기에서 욕망은 ‘하고자 함’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욕망이란 모든 종류의 제한과 경계, 구획을 넘어서는 흐름으로, 이른바 ‘탈주선’을 그리는 일차적인 어떤 힘이다.⁹⁾ 이러한 욕망의

7) 「从《玫瑰门》和《大浴女》看铁凝对人性的审视」, 『文艺理论与批评』, 2005年3期.

8) 「女性宿命的演绎与突破-《玫瑰门》的女性世界及其在20世纪晚期中国女性文学史上的意义」, 『四川师范学院学报』, 1999年6期; 余馥凝, 「《玫瑰门》中的三代女性形象」, 『文学界(理论界)」, 2011年4期.

9) 이진경, 『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희-노마디즘1』, 휴머니티스, 2004.

과정으로서 '되기'는 자기-동일적인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확고한 것에 뿌리박거나 확실한 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다.¹⁰⁾ 이렇게 보자면, 여성인물의 욕망과 그들이 보여주는 '되기'의 몸짓은 그들이 해체하고자 하는 정체성과 함께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는 정체성의 실체를 담아낸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성이 처한 현실과 유리되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 삶의 '진실'을 밝혀내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 따라서 『玫瑰門』의 여성인물들이 보여주는 '되기'의 몸짓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의 자기 정체성과 삶의 구성에 대한 추구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동시에, 티에닝이 감지하는 여성 삶의 '진실'도 따라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3대 여성인물의 평행 비교는 스킴을 통한 『玫瑰門』 읽기에 치중해 온 작품 해독의 지평도 확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견고한 분할선의 파열과 재구축 : 남성 되기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하면 우리 삶은 견고한 분할선에 의해 분할된 하나하나의 절편들, 즉 영토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영토란 "국가, 제도 계급뿐만 아니라 집합의 원소로서의 개인들, 개인들 사이의 상호 관계로서의 느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견고한 분할선에 의해 다 분할되어 있다."¹¹⁾ 경직된 채 배열된 각각의 절편들로 인해 사람들은 "모든 것, 한 절편의 시작과 끝, 한 절편에서 다른 절편으로의 이행을 계산하고 예견하는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견고한 분할선을 따라 사는 삶은 "많이 재단되고 아주 계산된 삶"이며 "제한된 절편들에 의해 진행"되는 삶으로, "통상적인 방식대로 통상적인 선을 통과하는 그런 삶"이다. 이는 "개인의 뜻에 반하여 특별히 강요된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48쪽.

10) 이진경,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노마디즘2』, 휴머니티스, 2004, 33쪽.

11)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지음, 김재인 옮김,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372쪽.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 통념과 상식의 형태로 습득된 습속에 따른 경직된 삶이고, 누구나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는 몰적인 삶이다.”¹²⁾

『玫瑰门』의 1대 여성인 스키윈에게 익숙한 삶이란 바로 이러한 삶이다. 그녀에게 부여된 '영토'는 그녀의 아버지에 의해 재단된 것이다. 그 아버지가 비교적 개명한 덕분에 그녀는 어려서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신식학교인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때 그녀에게 예견된 삶은 여학생에서 아내, 어머니로 이행되는 삶일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중학교에 입학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만나게 된다. '5.4' 흐름 속에서 자신이 익숙한 삶과 다른 삶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 동인은 화즈웬(华致远)이다. 그와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분할선에 균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녀는 화즈웬을 따라 '혁명가 되기'를 욕망한다. "(그녀는) 사회 흐름을 따라, 화즈웬을 따라 함께 시위에 참여하고 함께 수업 거부를 하였으며 함께 구호를 만들었다. 그녀는 화즈웬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열중해 있었다. 화즈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다소 어두운 그의 얼굴, 중간 정도의 날렵한 체구, 날카로운 눈빛의 눈, 이 모든 것들이 여태껏 그녀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격한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¹³⁾ 여기에서 "격한 감정"은 그녀의 탈주하려는 욕망일 것이다. 하지만, 탈주하는 욕망이 탈영토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탈주선의 확보가 수반되어야 한다. "도주선은 더 나쁠 수도 있다. 이것은 벽에서 다시 튀어나오거나 블랙홀에 다시 빠지거나 우연히 견게 된 우회로에서 가장 견고한 절편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¹⁴⁾ 스키윈은 탈영토화의 실패와 함께 더욱 견고한 분할선을 구축하여 재영토화하는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그럼 스키윈의 탈영토화가 왜 실패하였는지부터 시작하여, 그녀가 어떻게 견고한 분할선을 재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녀의 탈영토화 기획은 기실 실패를 내장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의 '혁명가 되기'가 내포하는 수동성 때문이다. 스키윈의 '혁명가 되기'는 화즈웬에 의해 만들어진 욕망이다. 그녀 스스로는 혁명가 되기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12) 이진경,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노마디즘1』, 610쪽.

13) 铁凝, 『玫瑰门』, 春风文艺出版社, 2003, 67쪽.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 내에 병기한다.

14)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위의 책, 391쪽.

대한 이해가 결핍되어 있다는 뜻이다. “매번 일이 끝나고 걸어가면서 그가 자기 옆에 있는 이 소녀에게 그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설명할 때면, 스킨은 그가 비록 지금은 남학교의 일개 학생에 불과하나 그녀가 잘 모르는, 그러나 틀림없이 존재할 것인, 더 광활한 세상에 속해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그 세상으로 가기를 원했다.”(67쪽) 이런 그녀에게 있어 화즈웬의 떠남은 욕망의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탈주하려는 욕망이 상실된 순간, 그녀는 가부장제에 포획되어 재영토화에 이르고 마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탈주하기 전, 그녀에게 익숙했던 삶, 그녀에게 예견되었던 삶으로 이행되었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스킨은 어떻게 견고한 분할선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가. 그녀의 견고한 분할선 구축은 그녀가 받아들인 ‘혼인’으로부터 비롯된다. 부모의 뜻에 따른 혼인은 그녀가 ‘여성 되기’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여성 되기’란 가부장제 질서에서 규정한 여성성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동일시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가부장제 성(性)적 윤리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난다. 남편은 스킨이 결혼 전 자유연애를 했다는 것을 발미로 하여, 자신의 성적 일탈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그녀를 끊임없이 멸시하며 모욕한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멸시와 모욕 및 그의 일탈을 감내한다. 자신의 혼전연애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다. 그리고 며느리와 엄마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충실함을 통해 남편의 회복을 기대한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가부장제 전통적인 ‘여성 되기’에 대한 욕망을 보여준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의미하는 ‘되기’의 관점에서 볼 때, 기실 스킨의 ‘여성 되기’는 새로운 생성이 아닌 퇴행이다. 이미 규정된 자기-동일적인 것과 ‘다른’ 것에 눈을 뜨고 그것(혁명)을 추구하다가 실패한 후, 이미 규정된 자기-동일적인 것으로 회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여학생’이었던 스킨에게 있어 그녀가 다시 욕망하고 있는 ‘여성 되기’는 왜곡된 ‘되기’인 것이다. 한편, 그녀가 이미 규정된 자기-동일적인 것으로 회귀하였을 때, 그 ‘여성 되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가부장적 질서 내 그녀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방편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그녀의 ‘여성 되기’가 벽에 부딪혔을 때 그녀가 보여준 대응방식이다. 남편의 끊임없는 성적 일탈은 아내 되기를 향한 그녀의 바람을 요원하

게 만든다. 게다가 아들의 죽음은 엄마 되기에 균열을 가져온다. 여기에 더해,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부모의 냉랭함은 갈수록 더해간다. 이는 며느리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스치윈이 회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견고한 분할선의 파열은 남편이 그녀의 몸에 두고 간 병(病)에 의해 촉발된다. 시아버지에 대한 성적인 ‘도발’은 그녀가 자신에게 규정한 며느리와 아내라는 견고한 분할선으로부터 넘어섰음을 상징한다. 이로부터 쭈앙 저택(庄家)은 부권 질서가 해체되고, 스치윈을 필두로 하는 모권 질서가 새로이 형성된다. 즉, 그녀는 ‘가장(家長) 되기’를 통해 새로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스치윈의 ‘가장 되기’는 가부장제에서 규정한 여성성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정체성을 여성에게 구성해준다. 주체성, 적극성, 지배성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 그녀가 탈영토화된 “유목적 공간”¹⁵⁾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한 분할선을 구축하면서 “흠 패인 공간”으로 재영토화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여성 정체성에 대한 그녀의 인식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녀는 여성이란 남성에 귀속됨으로써 그 존재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며느리에 대해 “그녀가 아무도 경작하지 않는 비옥한 토지 같다고 느끼면서, 그 토지의 주인은 바로 아들인 쭈앙탄(庄坦)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가부장제 성적 윤리를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가 된 며느리의 사랑 추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애정 없는 결혼 생활에 지친 손녀 쑤메이가 혼외련에 빠질까 봐 경계한다. 그녀의 재영토화는 ‘감시자’¹⁶⁾가 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녀는 며느리와 쑤메이를 끊임없이

15) 유목적 공간이란 지리적 공간 사회적 공간 나아가 사유적 공간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조애리, 『유목적 공간과 여성: 케이트 쇼우펜의 <각성>』, 『근대영미소설』 11집 2호, 2011.) 흠 패인 공간이 고정된 길과 통로를 지닌 정착민의 공간이라면 유목적민의 공간인 유목적 공간은 그러한 고정된 길과 통로에서 벗어난 탈주선으로 구성된 매끄러운 공간이다. “매끄러운 공간은 탈영토화의 백터가 지배적인 탈영토화의 공간이고 근거리의 촉각적 공간이며 각각의 점들이 국지적 절대성을 갖는 공간”이다. 이진경, 『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노마디즘2』, 382쪽.

16)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잘 규정된 절편들-영토- 위에는 두 종류의 감시자가 있다고 한다. 절편들은 심연을 일종의 커다란 검은 구멍을 에워싸고 있는데, 감시자들은 바로 그 심연 안에서 생산되는 운동, 돌출, 범법행위, 소음, 반란을 감시한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위의 책, 382쪽) 다시 말해, 잘 규정된 절편들, 이를 구획하고 있는 분할선들을 흔들거나 해체하려는 움직임들을 주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

감시하고 따라다니면서 이들의 ‘탈주’를 방해하고, 나아가 이들을 구속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스치윈의 ‘가장 되기’란 무엇일까. 이는 ‘남성 되기’에 다름 아니다. ‘남성 되기’란 다수자 되기이며, 권력 되기이자 중심 되기이다. 질서 또는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세요우순(謝有順)은 스치윈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인정받기를 욕망한 여성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¹⁷⁾ 즉, 그녀의 ‘남성 되기’는 질서 내에서 존재 확보에 대한 여성의 강한 욕망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부장제에서 여성에게 규정한 틀에 따라 ‘여성 되기’를 욕망하였으나 그 욕망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 정확히 말하자면 그 욕망이 축출 당하여 존재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출로인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러한 출로가 동성인 여성들에게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스치윈이 결국 자신의 존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읽을 수 있다. 스치윈에 대한 쑤메이와 주시의 인식이 이를 잘 반영한다. “그녀들이 헤어질 때가 되어서야 쑤메이는 그녀의 할머니와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그녀가 할머니 얘기를 하려고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지만, 할머니는 원래 그녀들의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쑤메이는 물론이고 주시에게도 그랬다.”(434쪽) 이렇게 동성에게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출로는 결국 봉쇄될 수밖에 없다. 주시와 쑤메이에 의한 안락사로 생을 마감한 스치윈의 말로를 보면 그러하다. 이것이야말로 티에닝이 전하고자 하는 여성 삶의 ‘진실’일 것이다.

3. 유목적 공간의 구성 : 유량자 되기

표면적으로 볼 때, 주시의 삶은 견고한 분할선을 따르는 삶이다. 의사로서

을 탈주하려는 욕망, 즉 ‘-되기’의 몸짓으로 본다면, 감시자들은 바로 그 욕망, ‘-되기’의 몸짓을 억압하거나 포획하려는 자들이라 하겠다.

17) 謝有順, 「铁凝小说的叙事伦理」, 『玫瑰门』, 春风文艺出版社, 2003, 488쪽.

그녀는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이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한다. 외국에 나가 있는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된 순간 부모와 단절해 버리고, 선배 의사가 비판받을 때 역시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여 그를 비판하는 것 등은 그녀가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순응하며 자신의 자리를 확고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내이자 어머니자 며느리로서 그녀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다. 그녀를 규정하는 가장 큰 특징은 ‘어머니’로 나타난다. 메이메이-어린 쑤메이-의 시선에 비친 그녀는 “터질 듯 커다란 젓가슴”으로 부호화되어 있다. 딸에게 먹이는 “하얀 젓”은 “생명과 풍요의 상징”(99쪽)이다. 메이메이에게 있어 그녀는 “믿음직한 산”으로, “이 산은 모든 공포를 막아줄 것이며 심지어 비바람으로부터 피난처가 될 수 있다.”(97쪽) 이러한 특징들은 그녀를 대지적인 모성으로 치환한다. 때문에 그녀는 스치원과 대비되는 ‘선한 어머니(良母)’ 형상으로 읽힌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에게 규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여성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주시는 질서 내에서 사회적 자아와 여성적 자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녀의 삶은 스치원이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의 지점일 것이다.

그러나 주시는 이것이 여성정체성 구성의 전부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는 그녀의 ‘유랑’에서 잘 나타난다. “주시는 자신과 자신이 서로 지근거리는 속에서, 서로 뒤엉켜 분명하지 않은 생각의 갈래 속에서 아내 노릇, 어머니 노릇,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다. 외부인이 보기에 송주시는 어찌면 이렇게 생각이 뒤엉키고 불분명하여 갈피를 못 잡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247쪽) ‘쥐잡기’는 그녀의 ‘유랑’이 가시화된 것이다. 특히 그녀는 임신한 암컷 쥐에 대해 집착한다. 자궁이 여성임을 상징하는 중요 공간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임신한 암컷 쥐를 발견한 순간 그녀가 느끼는 해부 욕망, 그리고 그것을 해부하여 자궁을 들어내는 것은 규정된 여성 정체성을 거부하는 몸짓일 것이다.

그런데 그 유랑은 다치(大旗)와 예룡베이(叶龙北)를 만나면서 일단락된다. 젊고 건강한 다치는 쇠약한 남편과 대조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녀의 유랑이 몸의 구속에서 야기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아침조례 때 주시는 여드름이 송송

나 있고 땀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다치의 굵고 짧은 목에 시선을 붙잡는다. 굵고 짧은 목은 육체적인 젊음과 건강함을 상징한다. 예룡베이는 '다름'에 대한 그녀의 정신적인 욕망을 상징하는 장이다. 어느 날 쭈앙 저택으로 이사 온 그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난다. 쭈앙 저택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아침조례 참여 거부는 이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 쭈앙 저택에서 아침마다 행하는 조례는 일종의 정치적 공간이다. 아침조례의 참여는 대당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사회적인 규범과 질서를 따르고 동조한다는 무언의 표지이다. 이에 대한 거부는 곧 규범화된 질서로부터 이탈이다. 이렇게 보자면, 아침조례에 나타나지 않는 예룡베이에 대한 관심은 그녀 내부에 탈주 욕망이 잠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 혼용되고 동일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의 표출인 것이다. 그녀 내면에 잠재된 이러한 거부감과 탈주욕망은 스치원에게 반(反)하는 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주시와 할머니 사이에는 '된다'와 '안 된다'가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할머니가 고의로 만들어 놓은 밥그릇 드는 법, 젓가락 사용하는 법, 씹는 법, 젓가락으로 음식 집을 때의 간격(메이메이는 그것이 틀림없이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등을 주시는 일부러 지키지 않았다. (중략) 메이메이는 외숙모의 이 모든 행동들이 고의라고 생각했다.(31쪽)

주시의 탈주욕망은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마침내 분출된다. 이는 다치에 대한 적극적인 추구로 가시화된다. 주시가 다치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메이메이는 이 순간의 주시를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 친다”는 말로 표현한다. 여기에서 구속과 통제를 풀어낸 이후의 자유로움을 읽어낼 수 있다. 그녀는 자신과 다치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스치원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며, 그와 결혼을 단행하고 결혼과 함께 쭈앙 저택에서 나간다. 미망인과 젊은 총각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그녀와 다치의 결합은 결혼에 대한 통상적인 생각들을 깨뜨림으로써 탈주선을 형성하게 된다. 아들을 낳은 후 다시 돌아오는 그녀의 모습은 탈주선 형성에 실패하고 재영토화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 예룡베이가 거주했던 방식을 볼 때, 그녀가 쭈앙 저택으로

탈주선을 확장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룡베이의 이질성을 상기하면, 이곳은 쭈앙 저택에 속하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자신과 다치의 혼인이 '제도'라는 영토에 귀속되고 있음을 발견한 순간 이혼을 결정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요컨대, 그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영토'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우연히 조우한 예룡베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그녀가 여성에 대한 관습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유목적 공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시의 유목적 공간은 병든 스킨에 대한 돌봄에서 더욱 확대된다. 스킨이 병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주시는 '영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남쪽 방-스킨의 거쳐-으로 옮겨온다. 그곳에서 스킨의 병수발을 들고 있는 그녀를 사회는 가장 모범적인 며느리로 인정하고 칭송한다. "연말에 사무소에서 '오호가정(伍好家庭)'이라는 큰 상을 보내왔다. 그것은 주시 가정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이며 칭찬이다. 그녀는 스킨의 며느리로서 이 영광을 얻었다"(454쪽). 사실 스킨에 대한 돌봄은 그녀에 대한 주시의 저항방식이다. 스킨을 간호하여 그녀의 생명이 "고통 가운데 연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잔인"한 짓임을 수궁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468쪽) 상장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 가자마자 그것을 장롱 위에 내던져 버리는 그녀의 행동은 '스킨의 며느리'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거부로 읽힌다. 이러한 그녀가 가장 모범적인 며느리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규정화된 여성성에 대한 조소일 것이다. 그녀를 모범적인 며느리로 칭송하는 사회에 대한 아이러니는 주시가 여성을 바라보는 관습적인 세계에서 탈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으로써 '남쪽 방'은 유목적 공간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 '남쪽 방'에서 다시 시작된 주시의 '쥐잡기'이다. 정확히 말하면 암컷 쥐잡기. 그녀가 암컷 쥐에 집착하는 것은 생육능력을 박탈하기 위해서이다. 앞서 임신한 암컷 쥐에 집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이는 그녀의 '유랑'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여성으로서 주시의 정체성 찾기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구성을 위한 주시의 노정을 볼 때, 티에닝은 남성을 매개로 하는 여성의 탈주에 회의적으로 보인다. 낭만적 사랑을 실현했던 남편과의 분리, 육체적 유랑의 종착지였던 다치와의 이혼, 정신적 유랑의 출로였던 예룡베이에 대한 추구 실패가 이에 대한 티에닝의

시선을 내장한다. 동시에, 주시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으리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낳고 기르기라는 가장 본질적인 여성성에도 회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시의 '유랑'은 전통적인 여성 정체성에 회의하지만, 그로부터 탈주선-새로운 창조의 선을 그리기도 쉽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이 대면하고 있는 삶의 진실일 것이다.

4. 분열된 자아의 통합 : 어머니 되기

주시와 마찬가지로, 쑤메이 역시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견고한 분할선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업가의 아내이자 성공한 화가로서 그녀의 삶은 어떤 미세한 균열도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쑤메이의 가장 두드러지는 정신적인 특징은 영토화에 대한 거부감이다.

쑤메이의 어린 시절-메이메이를 보자. 쑤메이는 메이메이를 거짓말쟁이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녀는 메이메이의 거짓말이 영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옹호한다. 진짜가 아니라고 느끼는 것을 진짜라고 믿도록 하는 세상에서 거짓말은 진짜가 아님을 아는 영혼을 지키고 숨기기 위한 부득이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당시의) 진리에서 너는 유리되었지, 그래서 너는 조심스러웠고 미심쩍었고 암울했고 착실하지 않았던 거야."(105쪽) 요컨대, 메이메이의 거짓말쟁이 되기는 자신이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탈주하려는 몸짓인 것이다.

메이메이의 이러한 탈주 욕망은 "어느 날 당신이 '그렇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당신이 '된다'고 했을 때 누군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는 그녀의 모습에서 잘 나타난다.(223쪽) 그녀는 또한 나뭇가지 위를 걸거나 날아다니는 환상을 품고 산다. 중요한 것은 꿈을 통해 그 환상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어린 아이의 꿈은 실현되지 못한 욕망을 드러낸다.¹⁸⁾ 꿈들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욕망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욕망으로, 일상생활에서 충족되지 않았지만 당

18) 프로이트 지음, 임진수 역주, 『꿈과 정신분석』, 계명대출판부, 2002, 26쪽.

연히 관심을 사야했던 욕망이다.¹⁹⁾ 요컨대, 메이메이의 꿈은 그녀가 심각한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으로부터 탈주하기를 욕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성년 쑤메이의 영토화에 대한 거부감은 자신의 몸 관찰하기와 게으름이라는 행동으로 가시화된다.

그러나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는지 누가 알 것인가 화가는 개인노동이다, 집으로 돌아가 안으로 들어가면 문에 도어 스킵프가 있다. 당연히 나는 “옛보기”조차 필요 없는 게 언제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잠에서 깨면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다,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보는데 화장실이 가장 편안한 곳이기에 화장실의 거울은 나를 가장 편안하게 해 준다. 그것은 따스하고 스스럼없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당신의 나체 또는 반나체의 몸도 자연 대범해진다. 여기에서 나는 스스럼없이 수많은 첫 번째 발견을 했다. 어디에 첫 번째로 주름이 생겼는지 어디에 조그만 사마귀가 났는지, 어디 주근깨 몇 개가 두드러졌고 어디 몇 개는 없어졌는지, 만약 발견하지 못하면 피가 날 때까지 손거스러미를 뜯는다. (414쪽)

쑤메이의 몸 관찰하기는 여성으로서 자기 발견하기일 것이다. 메이메이는 외숙모 주시의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그녀의 몸이 정말 아름다워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직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 쑤메이는 이것이 자신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순결, 몇 천 년 동안 쌓아온 순결이 거부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백한다.(240쪽) 주지하다시피,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몸은 성녀와 탕녀라는 이분법 속에서 섹슈얼리티와는 무관한 생산하는 몸으로 코드화되어 왔다. 성녀란 순결한 현모양처형 여성이며 탕녀는 성을 매개로 하여 남성을 파멸시키는 악마형 여성임을 떠올려 보면, 여성 섹슈얼리티는 금지와 수치의 대상이다. 메이메이가 여성 몸에 대해 느끼는 부끄러움과 회피는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쑤메이의 몸 관찰하기는 그녀가 이러한 코드화에 저항하여, 성녀/떡녀가 아닌 ‘여성’으로의 탈영토화를 기획하고 있음

19) 같은 책, 60쪽.

을 보여준다. 이것이 그녀와 남편을 단절시키는 동인 중 하나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런가 하면 게으름은 자신을 훌륭한 화가로 규정하는 세상과의 단절방식이다. 훌륭한 화가로 인정받고 있는 그녀의 삶은 바쁨으로 점철되어 있다. 사람들은 바쁜 그녀를 방해할까 봐 미안해하고, 바쁜 그녀가 행여 몸을 상할까봐 염려한다. 하지만 그녀의 바쁨 뒤에는 아이러니하게도 게으름이 놓여 있다.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그녀는 “언제나 잠을 자고 있고”,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사람들과 간극을 만드는 진짜 이유라고 본다. “나는 사람들을 속였다 이것이 내가 사람들과 교류하지 못하는 실상이다.”(415쪽) 이렇게 그녀는 자신을 훌륭한 화가라고 믿고, 그녀가 훌륭한 화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작활동에 몰두하고 있을 거라 기대하는 사람들을 배반하면서 탈주선을 형성한다. 자신들이 믿거나 또는 믿고 싶은 것을 진실이라고 규정하는 세상에 대한 조롱인 셈이다. 즉, 그녀는 게으른 사람 되기를 통해 세상에 속하면서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삶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상에 속하는 삶이란 표면적인 것을 진리로 믿고 따르고 심지어 강요하는 삶이다.

요컨대, 쑤메이의 두 가지 특징적인 행동은 사업가의 아내이며 화가인 드러나는 정체성, 영토화된 삶에 대한 거부 의 몸짓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쑤메이의 기억 다시 쓰기에서 잘 나타난다. 쑤메이는 메이메이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기억을 다시 쓴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되기’란 반(反)기억이다. 반-기억은 현재를 과거에 사로잡는 기억에 대항하여 기억을 지우며 다른 것이 되고 새로운 삶을 구성하는 그런 능력으로서 망각능력을 뜻한다.²⁰⁾ 이렇게 보자면 기억을 다시 쓰고 있는 쑤메이는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을 확고하게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메이메이의 대화 중에 자신의 자리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를 반영한다.

기실 나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일종의 표현 형식을 줄곧 찾지 못해왔다.
비록 내가 졸업해서 직장을 배정받아 췌이성 화원에서 전업 작가가 되고

20) 이진경,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노마디즘2』, 47쪽.

베이징에 있는 최고 미술학부에 연수까지 다녀왔지만, 개인 전시회도 열고
 상도 받고 인터뷰도 하고 (내 그림에 대한)평론들도 있지만(중략).
 새로운 시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새로운 궤도를 찾고 있다 나의 새로운
 궤도는 어디에 있는 거지?(324-325쪽)

이러한 쑤메이에게 있어 기억 다시 쓰기는 현재의 나를 확정하기 위한 방편
 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기억 다시 쓰기가 ‘어머니 되기’에서 일단락
 을 맺는다는 데에 있다. 그것은 메이메이와의 만남이 그치는 시점이다. 따라서
 그녀가 기억 다시 쓰기를 멈추었다는 것은 메이메이로부터 분리되어 현재의
 나-쑤메이 되기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쑤메이 되기란 무엇
 일까. 이는 ‘어머니 되기’이다. 그녀는 자신이 안식처로서 어머니의 ‘자궁’을
 찾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메이메이와의 대화를 종결한다. 그녀가 쑤메
 이 되기에 도달하는 것과 함께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데, 스치원을 안락사
 시키는 것과 딸 출산이 그것이다. 상술했듯 스치원은 남성 되기를 추구했고
 이의 가장 큰 특징은 모성의 탈각이다. 이로 보자면, 스치원이 해체한 ‘어머니’
 를 쑤메이가 다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쑤메이가 욕망하는 ‘어머니 되기’의 속성이다. 하나는
 남성/여성-지배/종속의 관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여성 정체성의 구성체로서 ‘어
 머니’이다. 쑤메이는 병들고 약해진 화즈웬의 벗겨진 머리를 떠올리며, 어머니
 의 자궁으로부터 세상에 나오는 순간의 갓난아이를 연상한다. 권력/중심으로
 서 남성 생명의 근원이 어머니-여성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남성/여성
 -지배/종속이라는 이항구조는 무의미해진다. 다른 하나는 생명 창조와 돌봄의
 공간으로서 ‘어머니’이다. 이는 어머니가 태양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에서 잘
 나타난다. 쑤메이는 태양의 내리쬐는 빛을 받으며 태양이 자신을 아주 가까이
 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가 유모차에 있던
 자신을 내려다보던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어머니가 태양이라는 대자연의
 중심으로 치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어머니’는 태양의 속성을 전유하
 게 되는 것이다.

다만, 티에닝은 생명 창조와 돌봄으로의 ‘어머니’가 출산의 도구로 코드화
 되는 것은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출산을 위해 산방(産房)에 들어간

쑤메이의 시선을 빌어, 여성이 출산의 도구로 등치되어버린 현실을 비판한다.

예전에 그녀는 이곳을 아주 신성하게 생각했다. 사방이 새하얗고 온통 린 치아오즈(중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논자 주)들만 있는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여기엔 임산부 외에 임산부만 있을 뿐이다. 강에 물고기가 없는데 시장엔 보인다고, 전 세계 여자들이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이 그저 애 낳기인 것 같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있어 이 임산부들은 진작부터 특별한 게 아니었다. 그녀들은 마치 커다란 돌덩이 하나, 솜뭉치 한 개, 불쌍사납게 배가 불룩한 물고기 한 마리를 보는 듯 했다.(470쪽)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여성이 오직 출산의 도구로만 부호화되었을 때 생명창조의 신성함은 사라지고 없다. 생명을 잉태한 여성의 몸은 ‘돌덩이’나 ‘솜뭉치’로 몰려온다. “불쌍사납게 불룩한 배”에 담긴 세상의 시선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출산이 그 신성함을 상실하고 여성은 출산의 도구로 부호화되는 것에 대한 작가의 불편한 시선은 생식능력을 박탈당하는 동물의 은유에서도 표출된다. 주시의 암컷 쥐 죽이기는 쥐들의 번식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고, 쑤메이의 동생 쑤웨이(쑤웨이)는 남편이 사 온 독일산 순종 암컷-고우고우를 거세시켜버린다. 그리고 쑤메이는 막 태어난 딸의 아명을 고우고우라고 짓는다. 출산의 도구로서 딸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몸짓인 것이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쑤메이의 ‘어머니 되기’에 나타나는 여성 삶의 ‘진실’이다. 티에닝은 여성 삶의 최후 ‘진실’이 ‘어머니 되기’에 놓여 있음을 암시한다. 작품 말미에서 간호사가 데려온 딸을 보자마자, 쑤메이가 “일각도 지체하지 않고” 뽀뽀하고 싶은 욕망을 느끼며, “그녀가 그녀를 사랑하는 걸까”라고 묻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그러하다. 기실 여기에서 흑자는 어머니로서 여성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읽어내기도 한다.²¹⁾ 또한, 모성에 대한 호명이자 물음이라고 보기도 한다.²²⁾ 그러나 이 물음이 딸에 대한 뽀뽀 욕망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쑤메이가 자신에게 내재된 ‘어머니’ 발견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21) 梁盼盼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그녀는 이 물음이 쑤메이와 어머니로서 그녀의 정체성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解读苏眉:分裂·成长与疗救』, 『梧州学院学报』, 2010年 2期)

22) 戴锦华, 『真淳者的质询-重读铁凝』, 『文学评论』, 1994年 5期.

것이다.

여기에는 여성 삶에서 구원자로서 남성 욕망을 벗어내고자 하는 티에닝의 바람이 담겨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기실 예룽베이를 추구하던 쑤메이의 모습은 구원자로서 남성에 대한 여성 욕망을 투영한다. 그러나 이들의 분리는 그 욕망에 대한 티에닝의 부정적 시선을 짐작케 한다. 이는 앞서 스치윈, 주시 등에게서 일관적으로 나타나던 것과 동일하다 하겠다. 남성을 매개로 하는 탈주의 거부. 대신 티에닝은 '어머니 되기'라는 가장 여성적인 지점에서 쑤메이의 분열된 자아의 통합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5. 나가면서

이상, 『玫瑰门』의 여성인물들의 탈주욕망에 주목하여, 그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되기'의 몸짓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들이 해체하고자 하는 정체성과 함께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는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를 통해 티에닝이 전하고자 하는 여성 삶의 '진실'은 무엇인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스치윈의 '남성 되기'는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삶 이행에 대한 강한 욕망을 드러낸다. 이는 가부장제에서 여성에게 규정한 틀에 따라 '여성 되기'를 욕망하였으나 그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였을 때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출로로 나타난다. 그러나 티에닝은 스치윈의 비극적인 말로를 통해 동성인 여성들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였을 때, 그 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주시의 '유랑자 되기' 욕망은 티에닝이 남성=귀속처라는 여성 삶의 통상적인 현실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쑤메이의 '어머니 되기'는 분열된 여성자아의 통합점이라는 점에서 여성 삶의 최종적인 진실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생명창조와 돌봄의 측면에서 어머니 되기를 극대화함으로써 자칫 이상화로 흐르거나, 이를 내세운 가부장제에 포섭되어 재영토회될 위험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이들 세 여성의 각기 다른 '되기'를 통해 공히 드러나고 있는 여성 생존에 대한 작가의 기대 혹은 바람이다. 티에닝은 여성의 '되기',

즉 새로운 생성을 타자성 벗기에서 찾는 것으로 보인다. 세 여성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원자로서 남성 모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국현대여성서사에 나타난 여성의 '되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건대, 이러한 그녀의 시선은 사실 낡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은 구원자로서 남성에 대한 욕망이 여성 삶의 숨겨진, 어쩌면 보여주고 싶지 않은 '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티에닝은 세 여성을 통해 이를 솔직하게 드러낸다. 동시에, 이를 극복하는 데에서 여성 '되기'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여성생존서사로서 『玫瑰门』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铁凝, 『玫瑰门』, 春风文艺出版社, 2003.
- 戴锦华, 「真淳者的质询-重读铁凝」, 『文学评论』, 1994年 5期.
- 黄 轶, 「一株妩媚而狰狞的罂粟花 -谈《玫瑰门》中的司绮纹」, 『郑州大学学报』, 1998年 2期.
- 张霞, 「女性宿命的演绎与突破-《玫瑰门》的女性世界及其在20世纪晚期中国女性文学史上的意义」, 『四川师范学院学报』, 1999年 6期.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지음, 김재인 옮김,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 齐 红, 「拒绝与诱惑—《玫瑰门》与当代女性写作的可能性」, 『齐鲁学刊』, 2001年 1期.
- 프로이드 지음, 임진수 역주, 『꿈과 정신분석』, 계명대출판부, 2002.
- 谢有顺, 「铁凝小说的叙事伦理」, 『玫瑰门』, 春风文艺出版社, 2003.
- 이진경, 『천의 고원을 넘나드는 유쾌한 철학적 유목 : 노마디즘1-2』, 휴머니스트, 2004.
- 贺绍俊, 「女性觉醒:从倾诉“她们”到拷问“她们” —论《玫瑰门》及其文学史意义」, 『海南师范学院学报』, 2005年 1期.
- 李华, 「从《玫瑰门》和《大浴女》看铁凝对人性的审视」, 『文艺理论与批评』, 2005年 3期.
- 梁盼盼, 「解读苏眉:分裂‘成长与疗救」, 『梧州学院学报』, 2010年 2期
- 余馥凝, 「《玫瑰门》中的三代女性形象」, 『文学界(理论界)』, 2011年 4期.
- 조애리, 「유목적 공간과 여성:케이트 쇼우펜의 <각성>」, 『근대영미소설』 11집 2호, 2011.

❖ ABSTRACT

Rereading Tie Ning's Rose Gate - Focused on Female Characters' "Becoming"

Choi, Eun Jeong

This thesis analyzes various becomings of female characters in Rose Gate written by Tie Ning. By this analyzation, we can pick out what identity the female characters eager to have decomposed, what identity they hope to create, and what do these procedures mean.

Si Qiwen's 'becoming male' presents strong desire to shift from periphery to center. However, it is meaningless when her tragic life can not be justified by those same female people. Zuxi's 'becoming wanderer' shows that Tie Ning refuses usual reality of woman's life which vest in man. Sumei's 'becoming mother' is the exact point where torn female ego gets to consolidate, and it means Tie Ning takes 'mother-becoming' as ultimate truth of woman's life. Besides, Tie Ning finds women's becoming something new as escaping from the other and she denies equation of man with savior.

Key Words

『장미문』, 여성 인물, 남성 되기, 유랑자 되기, 어머니 되기

Rose Gate, female characters, becoming male, becoming wanderer, becoming mother

논문접수일: 2013. 05. 10.

심사완료일: 2013. 06. 02.

게재확정일: 2013. 06. 07.